

月刊 동북

2005 7

영축총집 통도사



옥제향로 玉製香爐

조선후기 玉, 높이 33.1cm 구경 31.4cm 지름 41.4cm

이 향로는 근래까지 통도사 대웅전에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옥으로 만든 향로이다. 우리 나라에서 향로의 사용은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는 주로 긴 손잡이가 있는 형태의 향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경주 단석산 마애조상군이나,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의 승상에서 향을 공양하는 인물을 찾아 볼 수 있다. 통도사의 옥제 향로는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양식을 띠는 것으로, 동근 동체 상부 좌우 손잡이에 초화문을 새겼는데, 구연부에는 세 가닥의 굽은 태선이 돌기되었다. 또한 원형의 동체에는 두 칸의 두루마리 경관(경관)을 묶은 조각이 눈길을 끈다. 받침부분에는 3개의 호각(호각)이 마련되었고, 향로의 색깔은 처음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을 오랜 세월동안 피워서인지 황옥(黃玉)에 가까운 빛깔을 띄고 있다.

〈자료제공 / 통도사정보박물관〉

2005
제 26회

통도사 여름 수련법회

날씨가 무더워지고 많은 분들이 산사^{산사}를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산사의 수련법회에 대한 사회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인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선수행을 통하여
바른 삶의 자세를 고취시키고 불교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예년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26회 통도사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여름수련법회의 주안점은

1. 선수행을 통한 자아의 완성
2. 불교학을 통한 인격의 완성
3. 불교문화를 통한 정서의 함양

에 초점을 맞추고 통도사와 산내 암자들을 망라하여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한여름에 3박 4일간 통도사에 오셔서 알차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여름 수련법회 일정



수련법회일정 7월 13일(수) ~ 8월 24일(수)

대 상	구 분	수 려 기 간	인 원
일 반 인	제1차	7월 23일 ~ 7월 26일 (3박4일)	300명
일 반 인	제2차	7월 28일 ~ 7월 31일 (3박4일)	300명
청 소 년		8월 2일 ~ 8월 5일 (3박4일)	300명
전국초·중등교원		8월 18일 ~ 8월 24일 (7일 간)	80명



접수처

통도사 포교국 (055-384-8380, 055-382-7182, 중무소 및 각 말사암
전국 초·중등교원 접수는 박물관으로 문의 (055-384-0010)

영축총림 통도사

<http://www.tongdosa.or.kr>

백중기도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우란분절 백중절(음 7.15)**을 맞이하여 **백중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백중일은 삼악도에 떨어져 고통받는 일체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의 가피력과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고득락케 하는 날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법석을 여오니 많이 동참하셔서 선망 부모님의 극락왕생과 생전에 업장을 소멸하고 그 공덕으로 자손들의 안락과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재일 : 불기 2549년 7월 2일 (음력 5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 초재 : 7월 8일(음 6. 3) 금요일 오전9시 • 2재 : 7월15일(음 6.10) 금요일 오전9시
- 3재 : 7월22일(음 6.17) " • 4재 : 7월29일(음 6.24) "
- 5재 : 8월 5일(음 7. 1) " • 6재 : 8월12일(음 7. 8) "

회향일 : 불기 2549년 8월 19일 (음력 7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 장 소 : 설 법 전 · 영가1위 : 10,000원
- 접수처 : 화엄 전 · 문의처 : (055) 381-1288 / FAX (055) 382-7196

그림설명

삼존불을 중앙에 모시고
앞쪽에 민로왕보살님
뒷쪽에 지장보살님이
반야응선을 타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모습



차량운행

배우지일운행

부산 온천장 지하역 앞
오전 8:00-9:00

영축총림 통도사

등불

불기 2549년 개산 1380년 7월 · 동권 284호



팔금강역사(八金剛力士)

팔금강역사(八金剛力士)는 호법신(護法神)의 대표적인 신함으로 그 모양이 다양하다. 여러가지 무기를 들고 부처와 불법을 수호한다. 천리 팔대보살이 하현하여 나타난 8대 명왕을 말한다. 명왕(明王)이란 보살의 방법으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분노의 상으로 나타난 존들을 말한다.

발간 등불

1990년 5월 28일 등불

2005년 7월 1일 발행

발행인 김 권태연/전문

편집주간/남해

편집장/등불

회계/하금숙

편집위원/광우, 양권, 지현, 한경호, 신동원, 김미경

사진/지현, 라섬

발행처/불자문화 영축총회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8

전화 (055) 882-7182 팩스 (055) 882-7195

http://www.tongdosa.or.kr

편집디자인/대한기획

전화 (051) 805-7818/팩스 (051) 854-7075

E-mail: idashere@korea.com

열간등불은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2 명품12선 ①-6 옥제향로
- 6 이달의 법문
기도하는 마음/주지 현운스님
- 8 해장보각
보현행 원품 강의(41)/통도사 전계사 중산 해남스님
- 11 축산문집
- 12 특집/통도사 현대고승의 재조명
근대 통도사의 변화와 구하스님의 활동(3)/수렴시 전문위원 한동인
- 14 선어록
마조어록(馬祖語錄) 강의(4)/포교국장 영광스님
- 16 등불칼럼
마음의 때/편집주간 범해스님
- 18 다례/통다송
- 19 선어록/마조록
- 20 정책/정신적 빈곤
- 21 정책/정신적 풍요
- 22 말사탐방/관봉사
소박한 산문 속에 펼쳐진 극락세계 관봉사/양관스님
- 24 등불논단
통도사의 갑계비문/영축선원 서봉 반산스님
- 28 수련의 장
수행,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다보선원 불다빠라(本國)스님
- 34 통도사자비원
- 35 정보박물관
- 36 영축 소식
- 38 등불가족
- 39 하계수련법회 안내
- 40 백중기도안내



피안으로 가는 길

범부들은
눈앞 현실에만 급급하고
수행인은
마음만을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나 마음과 외부 현실
양쪽 다 뛰어넘는
이것이 참된 수행의 길이다.

현실에만 땡동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몰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과 같고,

마음만을 고집하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깥 현실과 안의 마음이
바둑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만 집착하면
양쪽이 모두 병이다.

(선가귀감)

기도하는 마음

현문스님/주지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을유년 하안거 결제가 시작된 지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영축총림의 모든 대중스님들이
청규에 따라 열심히 정진하고 계신 모습을 볼 때
이 나라 불교의 앞날이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는 매일같이 금강계단에서
우리 영축총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발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며
이 생명 다하도록 실천하겠다는
성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나와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불·보살님의 공덕이 함께하기를 서원하고
또한 자신의 편협한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도는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한
자기와 이웃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마음가짐은
우선적으로 간절한 마음이 앞서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부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겠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수다라나나 능엄주 혹은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 광명진언 등을
지송하는 것을 주력呪力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이나 지장경, 화엄경보현행원품,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원각경보안보살장 등
경전을 읽고 지송하는 것을
간경^{看經} 혹은 독경^{讀經}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등과 같이
불보살님의 명호를 지속해서 염하는 것을 염불^{念佛} 혹은 정근^{持念}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백팔배, 삼천배 등과 같이
절을 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능한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요령'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지속적으로 같은 자리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지닌 사람은 식사시간이 가까워지면
몸속에서 먼저 알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요령으로' 하다보면
몸과 마음에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져
기도삼매를 쉽게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편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 놓은 다음,
절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봉행하면 됩니다.
어쨌든 외부로 향한 기도가
점차적으로 내부지향적으로 바뀌어져가고
궁극적으로는 '일념에서 무념으로'
진전되어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간의 동물이시며,
온갖 풍덕으로 중생을 인도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어둠 속에서 망황할 때
당신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의 손을 잡게 하시며
불화로 인하여 반목할 때
당신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나태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
당신의 고행을 배우게 하소서. ^{南無}

보현행원품 강의(41)

중산 해남/동도사 전계사



10. 부처님 섬기기를 발원함

於一毛端極微中
出現三世莊嚴刹
十方塵刹諸毛端
我皆深入而嚴淨

한 터럭 끝에 있는 극미진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장엄한 세계 나타나고
시방에 있는 티끌 세계의 모든 털끝도
내 모두 깊이 들어가 장엄하고 청정케 하리

所有未來照世燈
成道轉法輪時有
究竟佛事示涅槃
我皆往詣而親近

미래세에 오실 세상의 등불계옵서
도불 이루고 법을 굴리어 많은 중생을 깨우쳐
구경妙妙의 불사로 열반을 시현示現 하거던
내가 두루 나아가서 친근親近 하오리

위의 두 계송은 미진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의 국토에 가서 항상 부처님을 뵈고 언제나 부처님을 섬기면서 법문을 들겠다는 발원이다. 이 가운데 처음의 계송은 부처님을 섬기는 처소를 말한 것으로 처음 두 구절의 “於一毛端極微中 한 터럭 끝에 있는 극미진 가운데 出現三世莊嚴刹 과거 현재 미래 장엄한 세계 나타나고”라고 한 것은 유정有情의 신체를 이룩하는 최소 단위인 털끝 하나, 이 세계를 이룩하는 최소 단위인 티끌 하나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의 무수한 보배로 장엄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니 이 세계는 제석천帝釋天의 그물과 같이 서로서로 상극相戾하고 상입相入하여 이곳이 바로 내가 부처를 받들어 섬길 곳이란 뜻이다. 제3구의 “十方塵刹諸毛端 시방에 있는 티끌 세계의 모든 털끝도”라고 한 것은 한 티끌 한 터럭이 그러함과 같이 모든 티끌 모든 털끝도 다 그러한 곳이란 뜻이다. 제4구의 “我皆深入而嚴淨 내 모두 깊이 들어가 장엄하고 청정케 하리”라고 한 것은 위에 열거한 모든 곳 즉 가는 곳마다 불국토로 장엄하겠다는 것이다.

“所有未來照世燈 미래세에 오실 세상의 등불계옵서”라고 한 것은 “세상을 비추어주는 등불”이란 탐貪, 진瞋, 치痴 삼독三毒의 먹구름 속에 갇히어 암흑闇黑 속에 허덕이는 중생을 지혜의 등불로 비추어주는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니 미래의 세계를 밝게 비추어주실 분 즉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란 뜻이다.

“成道轉法輪有 도를 이루고 법을 굴리어 많은 중생을 깨우쳐 究竟佛事示涅槃 구경²⁸⁸의 불사로 열반을 시현²⁸⁹하거든” 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을 모실 때를 말한 것이니 도를 이루시고 법문을 설하시고 열반을 보이시는 등 팔상²⁹⁰의 모습을 보이실 때를 모두 말한 것이다. 마지막의 제8구는 위에서 열거한 장소와 시간 즉 언제 어디든지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는 내가 다 나아가서 받들어 모시고 법문을 들겠다는 것이다.

11. 바른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願

速疾周遍神通力	재빠르게 두루 ²⁹¹ 하는 신통 ²⁹² 의 힘과
普門遍入大乘力	넓은 문에 두루 드는 대승의 힘과
智行善修功德力	지혜와 실행 널리 닦는 공덕의 힘과
威神普覆大慈力	위신으로 넓게 덮어주는 큰 사랑의 힘이며
遍淨莊嚴勝福力	두루 깨끗하게 장엄한 수승한 복덕의 힘과
無著無依智慧力	집착 없고 의지 없는 지혜의 힘과
定慧方便諸威力	선정과 지혜 방편 모든 위신력과
善能積集善提力	널리 쌓아 모을 수 있었던 깨달음의 힘과
清淨一切管業力	일체를 청정하게 하는 선업 ²⁹³ 의 힘으로
■滅一切煩惱力	일체의 번뇌를 찍어 없애는 힘과
降伏一切諸魔力	일체의 모든 마군 ²⁹⁴ 을 항복받는 힘과
圓滿普賢諸行力	보현보살의 모든 행을 원만하게 닦은 힘으로

이상은 일체중생과 함께 동시²⁹⁵에 모두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항상 불사²⁹⁶ 짓기를 발원한 것이다. 이 가운데 앞의 여섯 구절은 힘²⁹⁷이란 글자를 가운데로 옮겨 생각하면 이해하기 좋다. 즉

神通力速疾周遍	신통 ²⁹² 의 힘으로 재빠르게 두루 ²⁹¹ 하고
大乘力普門遍入	(진리에 부합하는) 대승의 힘으로 넓은 문에 두루 들며
功德力智行善修	공덕의 힘으로 지혜와 실행 널리 닦고
大慈力威神普覆	큰 사랑의 힘과 위신으로 넓게 덮어주며
勝福力遍淨莊嚴	수승한 복덕의 힘으로 두루 깨끗하게 장엄하고
智慧力無著無依	지혜의 힘으로 집착 없고 의지 없으며

라고 해석하면 의미가 잘 들어나며 이러한 것들이 일체중생과 더불어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며 진정한 의미의 불사²⁹⁶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열두 가지의 힘²⁹⁷을 열거하였지만 앞의 아홉가지는 인²⁹⁸이고 마지막 세 가지는 인을 맺어 과²⁹⁹를 이룸이니 안으로 번뇌를 조복하고 밖으로 마군을 항복받으며 보현행³⁰⁰을 원만히 함으로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12. 대원大願을 끝맺음

普能嚴淨諸利海	널리 모든 세계의 바다를 장엄하여 깨끗하게 하며
解脫一切衆生海	일체 중생의 바다를 해탈하고
普能分別諸法海	잘 능히 모든 법의 바다를 분별하며
能甚深入智慧海	능히 심히 깊이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고
普能清淨諸行海	널리 능히 모든 행의 바다를 청정케 하며
圓滿一切諸願海	일체 모든 원력의 바다를 원만히 하여
親近供養諸佛海	모든 부처님의 바다를 친근하고 공양하며
修行無倦經劫海	접촉의 바다를 지내도록 게으름 없이 수행하리라.
三世一切諸如來	삼세三世 일체의 모든 여래如來의
最勝菩提諸行願	가장 수승한 깨침의 모든 행원行願을
我皆供養圓滿修	내가 다 공양하고 원만히 닦아
以普賢行悟菩提	보현보살 원행圓行으로 바론 깨침 이루리.

앞의 여덟 구절에서 바다海라는 글자가 여덟 번이나 나오는 것은 “바다海”라는 말은 ‘많다’ 혹은 ‘넓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보살의 원력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큰 것이니 앞의 아홉 가지 원력을 끝맺는 말이다. 즉 “普能嚴淨諸利海” 널리 모든 세계의 바다를 장엄하여 깨끗하게 하며”라고 한 것은 정토淨土를 건설하겠다는 발원이며 “解脫一切衆生海” 일체 중생의 바다를 해탈하고”라고 한 것은 셀 수 없는 많은 중생을 해탈시키겠다는 원력이고 “普能分別諸法海” 잘 능히 모든 법의 바다를 분별하며”라고 한 것은 법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발원한 것이고 “能甚深入智慧海” 능히 심히 깊이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고”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지니겠다는 원력이고 “普能清淨諸行海” 널리 능히 모든 행의 바다를 청정케 하며”라고 한 것은 자리罪와 이타業을 열심히 닦겠다는 원력이고 “圓滿一切諸願海” 일체 모든 원력의 바다를 원만히 하여”라고 한 것은 소원을 원만히 이룸으로 일체가 이롭게 되기를 발원한다는 뜻이고 “親近供養諸佛海” 모든 부처님의 바다를 친근하고 공양하며”라고 한 것은 모든 부처님을 ‘친근’ 하겠다는 것은 잘 섬기겠다는 원력이고 ‘공양’ 하겠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양을 올리겠다는 것이니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원력을 함께 말한 것이다. “修行無倦經劫海” 접촉의 바다를 지내도록 게으름 없이 수행하리라.”라고 한 것은 언제나 부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게으름 없이 부처님과 뜻과 행을 같이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의 계송에서

三世一切諸如來	삼세三世 일체의 모든 여래如來의
最勝菩提諸行願	가장 수승한 깨침의 모든 행원行願을
我皆供養圓滿修	내가 다 공양하고 원만히 닦아
以普賢行悟菩提	보현보살 원행圓行으로 바론 깨침 이루리.

라고 한 것은 모든 부처님의 행원을 원만히 닦아 깨침을 이루겠다는 성정각원成正覺이다. 究竟

新 綠

花殘葉茂樹陰長	岸柳庭梅持向陽
水石平涼多翫客	烟霞遠織畫文章
風和木末清香起	月落林中大闌光
征馬鞍頭春夢盡	行人始覺夏臨床

신 록

꽃 진 다음 잎 무성해 나무 그늘 길구나.
 버들과 매화는 유달리 태양을 향하고
 넓고 서늘한 수석水石에는 나그네도 많은데
 벼를 짜는 먼 곳 안개 시를 한 수 그려내네.
 바람이 화평하니 가지 끝에 맑은 향기 일고
 달이 지는 숲 속에선 큰 빛이 드러나네.
 말 안장에 앉은 채로 봄의 꿈을 다했으니
 행인들이 비로소 여름 온 것 깨닫는구나. 2021

『죽신문집』에 실린 글은 근대 불교사에 있어서 활동이었던 구하 천보선사의 글들을 모아 펴낸 것으로
 후학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고 싶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하스님의 활동 근대 통도사의 변화와



한동민 / 수원시 전문위원

편집자주: 근대사의 한국불교계여한 회을 고었다고 히도 과언이 마닌 구 하· 경봉· 월하스님의 불교적 삶과 정신세계에 대한 조명을 시도하여 보았다. 지난 12월 19 일 월하대종사 열반 1 주기를 맞이하여 개최된 '통도사현대 고 승의 재조명'이란 제하의 주제 발표로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 으며 앞으로 월하스님· 경봉스 님· 구하스님의 관련논문을 차 려로 연재하기로 하였다.

김구하는 1909년 1월(음력) 화갑 직에서 면직되었다. 이러 한 사실을 부교장 이남파 이름 으로 신문에 「광고」하고 있는 데, “어떠한 사건과 관련한 것 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자못 격 렬하고 직설적이다.”

1910년 학감은 장청호(張淸湖), 교감은 송설우(宋雪牛)의 이름이 보인다.”

다시 부교장은 이남파에서 김길산(金吉山)으로 바뀌는 등 변 화가 있고, 김구하의 스승이었던 김성해(金聖海)가 감독으로 승 려학생 80여 명을 모집하여 보 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임제종 운동과 통도사

수 백년 동안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막았던 금령이 해제되 면서 승려들은 이제 자유롭게 도성을 출입하게 되었다. 또한 동대문 밖에 원흥사가 만들어 지고 근대적 불교 교육기관인 명진학교가 세워지는 등 불교 의 근대적 변화가 시작되었지 만 여전히 불교 종단은 존재하 지 않았다. 이에 1908년 전국 의 사찰을 대표하는 승려들이 모여 원종(圓宗)을 새롭게 창종하 고 원종 종무원을 만들었다.

일찍이 고려시대에는 10여 개 종파가 성립되어 서로 발전 하다가 조선시대에는 7개 종

파로 통합되고, 다시 선종과 교종의 2개 종파로 통합되었 다가 연산군과 명종 임금을 거 치면서 이 선교양종조차 강제로 해체되어 300여 년간을 종 단이 없는 상태로 겨우 명맥만 을 이어왔던 조선 불교계였다.

따라서 원종의 성립은 몇 백 년만의 종단을 건설한 셈이었 고, 원종은 서울 시내에 각황 사를 건립하고 명진학교를 개 편하여 불교사범학교로 승격 시키고 「원종잡지」를 발간하 는 등 불교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원종과 원종종 무원의 인가를 허락하지 않았 다. 이에 원종을 대표하던 이 회광은 일본 종파 가운데 조동 종파 연합하고자 1910년 10월 초 일본으로 갔다. 그리고 조 동종파 원종의 연합 맹약 7개 조를 체결하였는데, 이 7개조 는 일본 종파였던 조동종에 조 선불교를 부속시키는 불평등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제에 의해 1910년 8월 22 일 대한제국이 강제로 병합되 어 식민지로 전락한 지 불과 45일 뒤의 일이었다. 이러한 맹약 사실이 12월에서야 알려 지게 되었는데, 바로 통도사 승려들 덕이었다.

조동종 맹약을 체결하고 귀 국한 이회광은 13도의 중요한 대사찰을 방문하여 연합을 찬

성하는 날인을 받고자 했으나, 조약 전문이 원종 종무원 서기의 손으로 통도사 승려들에게 누설되었던 것이다. 이에 이회광의 의도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뜻있는 젊은 승려들은 이회광의 원종과 조동종의 맹약을 불교계의 한일합병으로 인식하였다. 즉 종파를 팔고 조상을 거꾸로 만드는 '배종역조'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1911년 새해가 되면서 광주 중심사에서 특별총회를 개최하면서 임제종 운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장단 화장사의 강사로 있었던 만해 한용운을 비롯하여 호남의 김학산, 장기림, 박한영, 진진웅 등과 더불어 이회광 일파에 반대하는 임제종운동을 전개했다. 임제종 운동의 확장을 위하여 영남의 통도사, 범어사 운동의 공간이 확대되면서 임제종 운동은 힘을 얻어갔다.

임제종 운동은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차이를 명백히 한 것으로 한국불교는 선종 가운데 임제종 계통으로 같은 선종이라도 일본의 조동종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용운을 비롯한 박한영은 경상, 전라도의 각 사찰에 통문을 내어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임제종운동은 근대 불교계

에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다. 바로 임제종 운동은 일종의 독립운동이었고 실제 임제종운동으로 각성된 청년 승려들에 의해 3.1운동이 조직되고 향후 조선 불교계를 이끌어갈 동량들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조약 전문이 통도사 승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설혹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묵인하고 넘어가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근대 불교계의 전개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임제종 운동에 의해 각성된 승려들에 의해 3.1운동이라는 민족사적 분수령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당시 통도사 승려들이 누구인지 자세한 이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들에 의해 조동종 맹약의 문제 제기는 곧 임제종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당시 불교계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시대적 소명에 충실했던 젊은 통도사 승려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III. 사찰령 체제와 그 변화

30 본산 통도사와 초대 주지

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불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였다. 이후 일제는 불교계의 포섭과 강제를 목적으로 1911년 사찰령을 발표했다. 일제당국은 조선 재래의 불교가 이 사찰령으로 인해 소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선전하였다. 또한 당시 사찰령에 의해 강력한 본산 주지로서 권한과 임무를 위임받았던 대부분의 본산 주지들도 일제의 선전에 동의하는 바가 되었다.¹³⁾

주)

13) 「대한불교신보」, 1909. 3. 11

14) 본교내(本敎內) 학강(學綱) 김구하(金九河)는 재임(在任)에 불부교육(不附敎育)하고 음해대중(陰害大衆)하여 암측관리(暗測관리)하며 사중대소사중(寺中대소사中)을 자탁학교(自탁學敎)하여 압제동포(壓制同胞)가 비기비재고(非記非在故)로 음정월분(陰正月分)에 혼산대중(混山大衆)이 회의(會議) 면직(免職)하였더니 구하(九河)가 자기(自己) 흉모(凶模)를 미증(未證)하여 본교(本敎) 폐지(廢止)되었다고 삭삭암우제처(삭삭암우제처)한 교양총장(敎養總長)과 교육열심(敎育熱心)은 비전(非前)하면 심배증가(心배증加) 되었사오니 수모계(數目計)시라도 구하(九河)의 서신(書信)은 일몰청시(日沒淸時)하시압.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 명신학교(明新學敎) 부교장(副敎長) 이남파(李南坡) 附啟

15) 「대한매일신보」, 1910. 1. 8

마조어록馬祖語錄 강의(4)

경남 영랑스님 / 동도사 포교국장

◎ 평상심平常心이 도道

《원 문》

示衆云, 道不用修, 但莫污染, 何爲污染, 但有生死心, 造作趣向, 皆是污染, 若欲直會其道, 平常心是道⁴, 何謂平常心, 無造作, 無是非⁵, 無取舍, 無斷常, 無凡無聖, 經云, 非凡夫行, 非聖賢行, 是菩薩行, 只如今行住坐臥, 應對接物, 盡是道, 道卽是法界, 乃至河沙妙用, 不出法界, 若不然者, 云何言心地法門, 云何言無盡燈,

《해 석》

대중에게 훈시하여 말했다.

「도는 닦아 익힐 필요가 없다. 오직 더러움에 물들지만 않으면 된다. 더러움에 물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나고 죽는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일 부러 벌난 짓을 벌이는 것을 바로 더러움에 물든다고 하는 것이다. 단번에 도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평소의 이 마음이 바로 도이다!

평소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



인가? 그것은 일부러 짐짓 꾸미지 않고, 이러니저러니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며, 마음에 드는 것만을 좋아하지도 않고, 단견상견斷見常見을 버리며, 평범하다느니 성스럽다느니 하는 생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리킨다. 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범부凡夫처럼 행세하지도 않고, 성인현자처럼 행세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보살행菩薩行이다.> 지금 이렇게 걸다가는 곧 멈추기도 하고, 다시 앉아 있다가는 곧 편안하게 눕기도 하는, 형편을 따라 움직이는 이 모두가 바로 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계法界를 따로이 벗어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심지법문心地法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무진동無盡燈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강 의》

1) 시중示衆: 이는 극히 교리적인 색채가 강한 상당설법上當說法이다. 이를 상당설법이라 하는 것은 여타의 선훈傳誦도 마찬가지이다.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해서 잡다한 교리와 사상을 그대로 한 군데에 모아 놓은 것 같으며, 그 구성은 마조 이전의 선훈傳誦, 예를 들면 《신회어록神會語錄》이나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 등과 비슷하다. 말하자면, 경중經宗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아포리즘aphorism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을 삼는 것이다. 반면에 선훈은 이와 같은 경중經宗의 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서, 그 독창성을 한껏 발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도기적過渡期的인 미숙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본시중으로부터 마조 사상의 양면성, 특히 그 교학적인 배경을 추리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새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② 도불용수道不用務 : 《역대법보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도道는 단계에 따라 닦아 나가는 것이 아니며, 법法도 단계를 따라 깨달아 나가는 것이 아니다. 바야흐로 마음을 한가로이 하여 이런저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이 그대로 도道이다.」 이 말은 뒤이어 나오는 평상심시도平常心道라는 말과 함께 마조의 기본적인 입장이 정중종淨衆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제5권 남악장南岳堂에 다음과 같은 말이 보인다. 「다시 혜능이 물었다. <수행으로 중과重果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회양이 이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수행을 하면 중과야 없지는 않겠지만 더럽혀져선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단하천연丹玄天然도, 「도는 닦아서 얻을 수 없으며 법은 깨달아 얻을 수 없다.《경덕전등록》제14권」라 하고 있다. 《임제록》에도 보인다.

③ 평상심시도平常心道 : 「즉심시불即心佛과 함께 마조선宗

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 종래의 복잡하고 난해하기만 한 교리체계를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사로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또한 그 나름대로의 교리사상체계教理思想體系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조주록趙州錄》상권에, 「조주가 남전南泉에게 물었다. <도란 무엇입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평상심이 도이다.> 조주가 다시 물었다. <도에 이를 수는 있는 것입니까?> 남전이 말했다. <의심을 가지게 되면 곧 어긋난다.> 운운」이라고 한 것은 본문과 동일한 시츄에이션 situation인데, 《경덕전등록》제28권에 나오는, 역시 남전의, 「그때에 한 중이 물었다. <종래의 제조사趙州師 그리고 강서대사江西大師에 이르기까지 이 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즉심즉불이요, 평상심이 바로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스님께서는 마음이 그대로 부처는 아니며, 지혜가 그대로 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든 학인學人은 의심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자비로써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남전은 버럭 큰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만일 부처라면, 어찌 이와 같이 다시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태여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부처를 의심해 보지 않은 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나는 잠시도 부처였던 적이 없다. 조사를 보지도 못했다. 너희가 정작 이같이 말한다면 직접 조사를 찾아가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평상심시도라는 위의 말이 교조화敎條化 내지 고정화固定化되어 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④ 무시비無是非 : 《제경요초總經要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어떠한 까닭으로 수도修道라고 이름하는 것입니까?> 사익보살四益菩薩이 대답하여 말했다. <만일 이것은 법, 저것은 비법非法이라고 분별해 두지 않으면 이상二相을 여의게 된다. 그리하여 수도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물어 말하되, <무엇을 수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대답하여 말하되, <있음에도 떨어지지 않고 없음에도 떨어지지 않으며, 이것은 있는 것이고 저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분별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이 익히는 것을 수도修道라고 일컫는다.>」 趙州

마음의 때

범해스님/편집주간



일상생활 속에는 사람이 사는 모습들이 뜻밖에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아침 공양 후 TV에 전원을 넣자 들어서지는 안 될 어지러운 소식이 있었다. 전방 어느 부대에서 젊은 군인이 수류탄과 총기를 난사해 같은 동료들 살상하였다는 것이다.

또, 며칠 전에는 강사스님 한 분으로부터 “개똥녀”라는 말이 인터넷상에 인기 검색어 중 하나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다. ‘어느 젊은 여인이 지하철에 애완견을 데리고 차를 타는데 그 강아지가 실례(?)한 내용물을 치우지 않자 주변의 어르신들이 대신 오물을 청소하는 사진이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 여인을 비난하는 ‘발’이라는 것이다.’

사건의 원인이 사고 ~~복~~ 폭력과 공공의식의 결여로 인한 무이성적 행동이 발로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우리 사

회의 정신적 빈곤의 단면들이다.

이러한 소식들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듣지 않아도 되고 꼭 들리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순수한 부처의 마음에 찌꺼기를 남기게 하는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습관이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자주 반복하다보면 마음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버리는 것을 혼습되어진다고 한다. 때문에 인과론을 비추어 보면, 사람은 일상에서 나타난 행동의 양식도 어떤 과정으로 혼습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삶 속에는 숨겨야 할 악보라는 선행이 엄청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황당해하며 목청을 소리 높여 비난을 하고 수많은 선행에 대해서는 지나쳐

버린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선행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모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 도리이기 때문이다.

절에서 살림을 맡아 소임을 살다보면, 어머니들이 자식걱정에 몸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스님! 우리 아이는 컴퓨터게임에 매달려 하루를 아주 컴퓨터 속에 들어가 살아요. 책은 아주 뒷전이구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좀 안하고 공부에 신경 쓰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며 물어오곤 한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폭력조직을 만들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 부모님들을 황당하게 하는 것이 어느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하소연처럼, 우리 아이



들의 현 주소이다.

군중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인간이 나누어야 할 무수한 인연에 대한 절핍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그들의 행동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로부터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우리 사회의 무한 책임일 것이다.

인간의 괴로움 중 하나는 군중으로부터 소외를 받는 외로움이라고 한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인격형성은 생활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들게 마련이다. 청소년들의 성장기의 삶의 터전을 들여다보면, 가족 구성원의 최소화, 부모들의 편향적이고 이기적인 자식사랑, 주택구조의 폐쇄성, 사회의 정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영향 받아온 청소년들에게서 정신적 풍요를 기대하고 사회에 나아가

우리들이 바라는 바의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산에 올라 고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먼저 삶에 성공적 가치의 양태를 바꾸어야 한다. 즉 각성이 필요하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정신적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데 필요한 성격을 어떻게 형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불교는 '인간의 삶의 양식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혜에 있다'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듯이 지혜란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며 살아야 할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그것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할 무보험의 사회계약이며 인간생존 윤리임을 심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본래로 존재하는 인간이성의 존엄적 가치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삶으로서 숭고한 휴머니즘일 것이다.

혹자는 우리 시대의 정신적 가치를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부재하다고 한다. 그런 부재로 인해 정신적 빈곤이 사회성에 나타난다고들 한다. 남을 의존하려는 발상을 우리 생각에서 털어야 한다. 시대의 영웅을 찾지 말고 '인간은 누구나 각자 지니고 있는 소중한 부처가 있다'는 각자의 부처를 서로 존중하고 그 부처와 나의 삶과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붓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말아야 하는 소식을 씻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조현**

동 다 송



中有玄微妙難顯
眞精莫教體神分

차에는 현묘함이 있으나
진체를 나타내기 어려움이니
참다운 정기는
물과 차가 잘 어우러져야 하네

已足：

한 잔의 차에서 몸과 마음의 안락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속에서 인생을 발견하는 소중한 일일 것이다.

‘차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우칠 것인가’

조주의 “꺾다거” 소식이 무엇일까? 이 화두를 끼고 좋은 차와 좋은 물 선별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진기를 나타내는 작업이 바로 불교 다도의 길이다.

참다운 차의 정기는 차의 몸인 물과 차의 신기가 서로 잘 어우러져야 한다.

차 속에는 쓴 맛, 떫은 맛, 단맛이 있다. 그 맛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한 잔의 차 맛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과 분별심에서 벗어나

그 오묘한 차의 운용에 인생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 차 속에 내가 있고

내안에 이미 차가 들어와 있음을...

마조록



“問離四句切百非 請師直指西來髓”

한 스님이 마조선사께 가르침을 청하였다.

“선사께선 사구백비四句百非를 쓰지 말고

저에게 조사가 서쪽으로 오신 뜻을 바로 알려 주십시오.”

또 어떤 스님이 마조선사 앞에다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네 획을 긋고 말했다.

“하나는 길고 셋은 짧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구백비를 떠나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자 선사께서는 땅에다 획 하나를 긋고 말씀하셨다.

“길고 짧다고 말하진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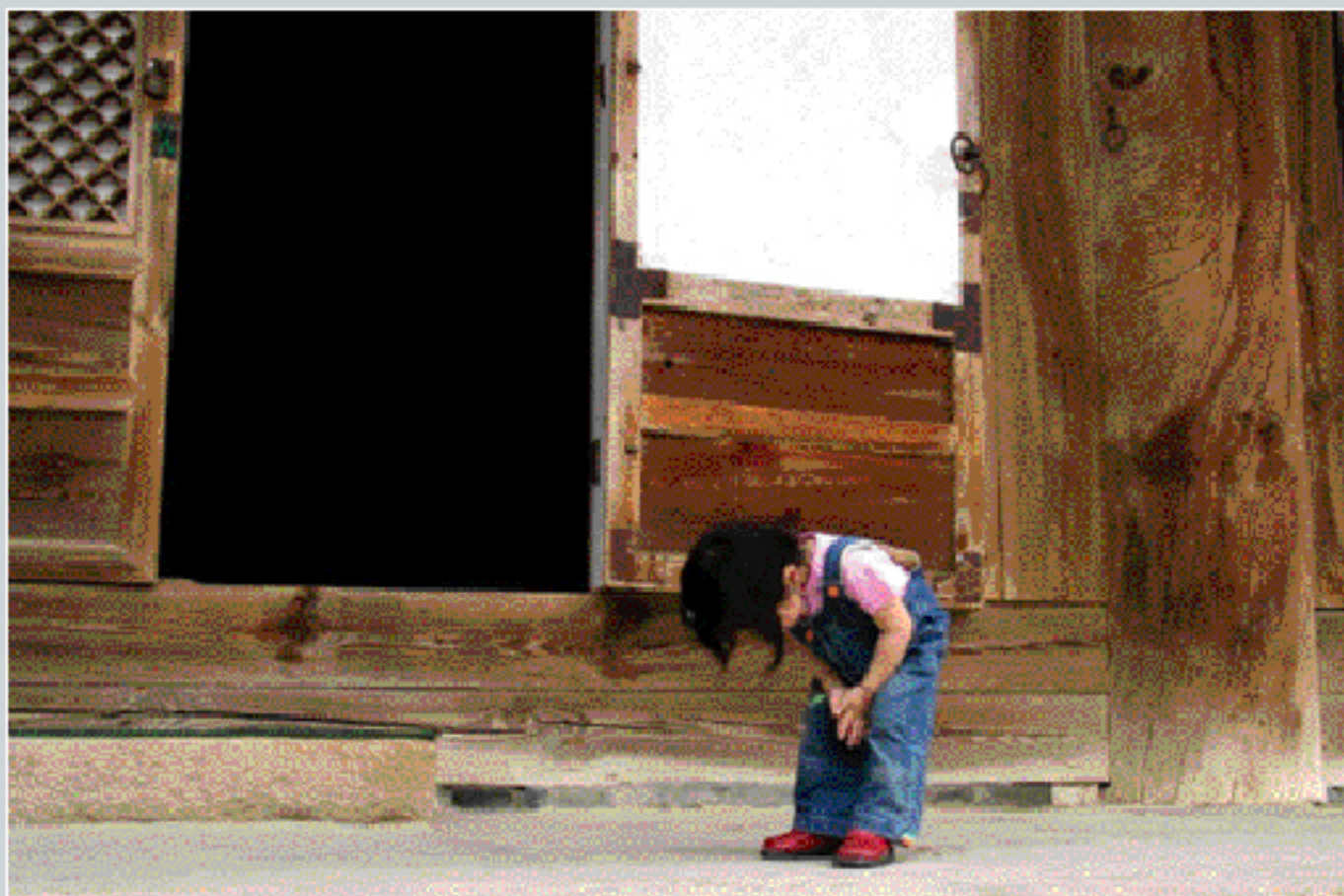
그대에게 대답을 끝냈다.”

정신적 빈곤



몸은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은 생각의 실체라고 합니다.
때문에 처음 생각이 청정해야 마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려는 생각을 낼 때
그것을 불가능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지혜라고 합니다.
모두의 자산인 자연을 보호하고자 출입금지 표지판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 그늘 밑 풍경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신적 풍요



“안녕하세요!”

어느 집 처자일까? 이쁘기도 하여라

천진이란 말은 부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천진불이라고 하였답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에서는 농촌을 떠난 자식들이 평소 안하던 문안 인사를

요즘은 매주 쉬지 않고 찾아온답니다.

조그만 이곳에 밝은 어른들은 오늘 이 아기보살님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소박한 산문 속에 펼쳐진 극락세계 **관 룡 사**

양관스님/통도사 감사



창녕에서 가장 큰 가람인 관룡사는 원효대사가 제자 송과와 함께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다가 “아홉 마리 용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하여 가람 이름을 관룡사라고 지었다고 전한다.

한국관광공사는 ‘6월 가 볼 만한 곳’으로 이 곳 관룡사를 다른 세 곳과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이곳은 유명세와는 달리 그리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다. 정갈한 옛 향취와 문화재와, 목탁 소리가 살아 숨쉬는 철저히 소박함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룡사로 들어서는 길에 제

일 먼저 사람을 반기는 것은 찾길 옆으로 보이는 한 쌍의 돌장승이다. 얼마 전 도선생들에 의해 다른 곳으로 잠시 외출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도 곳곳하게 이곳을 지키고 있다. 차를 별찍이 주차하고 돌계단으로 오르다 보면 옛날에 지어진 일주문이 나온다. 우리나라 절중에서 가장 작고 정감이가는 아담한 크기로 관룡사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일주문을 들어서자 귀에 익은 염불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온다. 통도사에서 많이 들던 염불 소리다. 오랫동안 통도사에서 노전 소임을 맡아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분의 염불보다 귀에 익은 내겐 참 정감이 가는 목소리다.

돌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인연이 되어 이 곳 관룡사에 주지 소임을 맡게 되었다. 염불소리에 젖어 법당으로 들어가니 스님 혼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계신다. 이곳에 부임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기도 스님도 없고, 법당을 맡을 보살님도 없어 모든 걸 직접 하신다고 한다. 살기는 큰절이 그리우신가 보다.

주위를 둘러보니 공사가 한창이다. “스님 공사판 감독 되셨네요.” 하고 조금은 무례하게 물긴 했지만,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손봐 나가야 하니 이더운 여름에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관룡사 경내 곳곳에는 오래된 역사를 눈으로 증명이라도 하듯 수많은 문화재가 줄지어 서 있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원음각(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호)과 종루, 그리고 원음각



뒤에는 약사전 3층석탑(유형문화재 제11호)과 관룡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19호)을 모시고 있는 관룡사 약사전(보물 제145호)의 독특한 건물이 눈길을 확 잡아 끈다.

조선 후기에 중건된 대웅전(보물 제22호)은 정면 3칸의 다포식 건물로, 본존불상을 모신 금당답게 장중하면서도 단아한 멋을 풍기는 외관이 돋보인다. 그러나 대웅전 안에 들어가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다. 틈이 없이 세곡히 들어찬 단청과 벽화가 아름답다 못해 화려하다.

관룡사는 건물은 크지 않지만 정성을 기울이고 높은 미적 수준으로 소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곳임을, 몇 곳만 둘러보아도 이내 알아차릴 수 있다. 관룡사 내 건물은 모두 적당한 마당을 끼고 있으며 나지막한 높이를 유지, 불자들과 함께 하려는 자세를 심어주는 듯하다.

명부전과 요사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15분 정도 올라가면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

(보물 제295호)이 중생세계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용선대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건너편 바위에서 바라보면 한 척의 든든한 바위 배(석선대배)가 푸른 바다를 헤치고, 고통의 파도를 넘어 극락의 세계로 항해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이곳이 이렇게 조용함과 고요함만이 감도는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스님들에게 고요하고, 진정으로 성스러운 곳에서 다른 많은 참배객들 없이 조용히 기도하라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 좋은 기도도량을 우리 스님들만의 기도처로는 삼을 수 없을 터, 주지 스님은 이곳을 다시 기도 도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한 가지가 아니라 중생들 모두 와서 많은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량으로 꼭 다시 만드시겠다. 먼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서, 그리고 앞으로 조금 익숙해 지고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든 불자든 가리지 않

고 모든 사람들에게 점심 공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산을 걱정하는 내게 면박을 줄 정도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주지 소임이 바쁘겠지만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서, 주위에 흠어져 있는 선배 스님들의 부도들을 한데 모아 통도사처럼 부도전을 만들고, 또한 포교를 위해서 사찰 홈페이지를 복원하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포교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

다시 내려오면서 보니 주위에 있는 계곡이 참 아름답다. 이곳 관룡사에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이상, 그 많은 관광객 이전에 우리 불자들은 조용한 산사에 먼저 참배하고 고요한 염불소리로 마음을 먼저 밝힐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여름이 가기 전에 화왕산의 갈대가 다 타기 전에 다시 한번 옛노전 스님의 염불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조원**

통도사의 갑계비문(甲契碑文)

서봉 반산스님/부산 영축선원

1. 들어가는 말

한 사찰이 유구한 역사를 지나는 동안 사세(寺勢)와 법맥(法脈)을 면면히 계승해 온 이면에는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항상 노력하는 많은 어른들이 계시기 마련이다. 이번에 부도전(浮屠殿)에 모셔져 있는 수많은 비석과 공덕비를 보면서 새삼 선조들의 보사정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먼저 분향구배(焚香九拜)를 올린다.

통도사에 흐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을 몇 가지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싶다. 그 첫번째는 창건주 자장율사를 을조(億祖)로 하는 《계율호지(戒律護持)의 정신》, 두 번째는 모든 대중이 사세확장(寺勢擴張)과 사찰 수호를 위해 각고(刻苦)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보사(普寺)의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를 우리는 청정승단(淸淨僧團)을 유지·발전시키는 승통진작의 핵심사상이라 할 것ियो, 후자는 장구한 세월을 이어오지 못하고 중도에 폐사(廢寺)되는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람수호의 핵심사상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갑계비문(甲契碑文)은 때문에 후자의 가람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많은 선인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후세의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공덕비인 셈이다. 다만 비에 새겨진 분들이 모두 출가대중인 스님

들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번에 “불교연구회”의 첫 회지발간을 계기로 통도사에 흐르고 있는 사상적인 발굴보고 및 계승의 관점에서 본고가 기획되었기에, 우선 법맥상승(法脈相承)이나 자료들이 불충분하였지만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위한 기회로 삼아보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비문의 건립의도와 인물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자세히 밝혀 보고자 노력하였다.

2. 보사정신과 갑계의 조직

현재의 큰스님들이 출가하여 수도에 전념할 무렵을 대개 60년대 초에서 70년까지로 본다면, 이 시대야말로 현대한국이 후진국과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격변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전의 시대는 어떠하였는가? 쉽게 말하면 한국전쟁 전은 일제침략기의 암운(闇雲)속에서 고통받은 시대요, 50년 이후는 전쟁 후 절대빈곤과 경제건설을 이룩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였던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의 사찰 역시 가장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앞세대의 스님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중들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사찰의 보수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본고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통도사의 모든 대중들은 사찰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스님들은 체조직을 통하여 저마다 나름대로 힘쓰고, 영불만일회의 조직과 독립군의 후원과 군자금의 마련에까지 힘을 모았던 것이다.”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갑계의 조직은 통도사 본말사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본산사찰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보사운동(普寺運動)’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임자갑계와 무오갑계는 그 시절 수많은 체조직 가운데 극히 일부이면서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는 현 종단의 종정예하(宗正統下)이시며 영축총림의 방장(方丈)이신 월하대선사(月下大師)를 비롯한 노스님들의 한결같은 고증에 의한 것임을 먼저 밝혀둔다.

1) 임자갑계(壬子甲契)에 대하여

그러면 먼저 임자갑계를 살펴보자. 임자년은 1892년(철종23년)이고 건립년대는 광무(光武) 2년(1898)이다.

그 내용을 해석하여 정리하면,

『제목 : 임자 갑계원 보사유공비(壬子 甲契員 普寺有功碑) 명월(銘月), “고인들을 법받아 계를 모아서 임자갑계(壬子甲契)라 이름지었네. 정직하여 이끌어 관계없이 한결같이 위계(位階)와 나이를 귀하게 생각하네! 法古人 嚴命名壬子 匪直關利 貴同序齒』

차라리 그 사사로움은 뒤로 할지라도 힘 다해 보사(普寺)를 먼저 생각하니 이제 돌에 표해 두어 그 역사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繼後其私 克先補寺 石焉寫表 不朽之史)

壬子甲 員補寺有功碑
法古人 匪直關利
命名壬子 貴同序齒
克先補寺 不朽之史
繼後其私 石焉寫表

光武二年十月日 主事布嶺有宗 時僧統戒周 監役性浩
錢金千兩寺納 番三十斗只大雄殿 二十八斗只觀音殿
甲長玄潭聚映 布山仁鶴 月初源善
愚谷潤禹 聖海南巨 義化
古山眞一 德雨壯燦 井燦
會雲在元 一德波大潤 妙精
世山應洙 義陽載浩 繼善法信 讚燦
義陽載浩 大月性閑 法修文燦 敬燦
仁波英玄 龍山法證 順詒 元尚寬
奇坡周悟 中庵奇正 法奉 元希
布雨典燦 蓮峯鳳五 法洪 奉先
繁華奇燦

1) 근세 통도사의 대표적인 고승(高僧)이었던 구하선사(九河禪師)(1812~1865)는 1910년부터 주지로 재직하며 임정총리(任正總理) 안창호(安昌浩) 등에게 임시정부 후원금(後援金)과 독립군의 군자금(軍資金)을 지원하였다(통교근세년, 통교인명사전 p.299). 또 근세의 선지식이신 경봉선사(敬奉禪師)(1892~1982)도 국악암에서 주석하시며 도반 정보우(鄭普雨)스님과 1925년부터 30년간 영불만일회(永佛萬日會) 회주(회主)로 봉사하심으로 그 맥을 잇고 있다. [비밀통첩, 삼스굴원지]

2) 한국학중앙연구원(韓國學中央研究院)에서 편집한 [통도사지(通度寺志)](通度寺志) 제5집, 아세아문화사(亞細亞文化社) 1979년, 서울)를 참고하면 임오갑계(壬午甲契)(1892년 임오, 1892), 병오갑계(丙午甲契)(1896년 병오, 1896), 임자갑계(壬子甲契)(1898년 임자, 1898), 무오갑계(戊午甲契)(1900년 무오, 1898)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원(契員) : 갑장(甲長) 현담취영(玄潭契英)과 성해남(成海南巨, 1854-1927, 연봉봉오(蓮峰鳳五) 등 42인의 이름으로 금전(金錢) 또는 丘 천냥(千兩)을 사중(寺中)에 헌납(獻納)하고, 공양답(供養畓) 30두지(斗地)를 대웅전(大雄殿)에 28두지를 관음전(觀音殿)에 올립니다.

일시 : 광무(光武) 2년(光武 1898) 10월 일

시중질(時中執) : 승통(僧統) 주지(住持) 계주(戒主), 주사(主事) (총무 : 포령유종(府令兪宗), 감역(監役) (실무자 : 성호(性浩))

위의 내용을 보면 공덕비라 그런지 참으로 간단한 내용이다. 그러면 몇가지만 분석해 보자. 명칭이 입자갑제라 하였는데, 고증에 의하면 이는 생년(生年)을 기준으로 입자년(立字年 1853)에서부터 10년까지 계(契)에 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갑제란 출가년 기준이 아니라 생년(生年)으로 동년배라 할 수 있는 10년 주기로 모아진 모양이다. 비명의 내용은 참으로 소박하고 후세사람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사실을 전해주려는 목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 다음으로 계원(契員)은 대개 40명 내외가 아니었나 한다. 그리고 전원이 통도사에 적을 둔 승려

들로 법백(法伯)상승으로 본다면 조선조의 환성지안(환성(玄聖) 1664-1728) 선사(禪師) 계통의 설송연초(雪松演超, 1676-1750) 스님 문화(門下)인 것이다.

2) 법계도와 입자갑제의 인물들

이제 계원에 대해서 밝힐 차례다. 가능한 한 추적하여 보고하려 하였으나 이미 세월이 제법 흘렀으며 고증해 주실만한 분들이 대부분 열반하신 후인지라 밝혀진 몇 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아래의 여러 스님들의 행적을 『해동불조원류』와 방장스님을 비롯한 생존해 계신 노스님들의 고증을 토대로 법계표를 만들어 보았다.

이 법계표(法系表) 이하 表로 약칭을 토대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서 숫자로 표시해 둔 것을 함께 보자. 먼저 갑장(甲長 朴 契長)인 현담취영(玄潭契英, 1853-) 스님도 전기가 미상이다.

(1) 우곡윤우(愚谷兪愚 ①) 스님은 생몰년 및 전기

3) 환성지안(玄聖地安, 1664-1729) : 조선중기스님, 자는 삼락(三樂) 성은 정씨, 춘천태생. 1678년(仁宗40) 15세에 미자산(彌子山) 운분사로 출가하여 쌍봉정원(雙峰正院)에게 수구(受具)하고 월담설계(月潭雪契)에 참여하여 법을 이었다. 사후(死後)는 침식(沈食)을 잊을 정도로 경전연구에 힘썼으며, 1690년 직지사(直智寺) 화엄좌주(華嚴座主) 모운진(毛運進)을 찾아갔는데 모운스님은 그에게 탄복하여 수백의 학인을 그에게 맡기고 떠났다. 이때부터 명성이 알려지고 1725년(英祖10) 금산사(金山寺)에서 화엄법화(華嚴法華)를 열었는데 1천 4백의 대중이 운집하였고, 이 때문에 무고를 당해 옥에 갇혔으나 무죄로 밝혀져 풀려났다. 그러나 1729년 다시 무고를 받아 제주도로 유배당하여 7일 만에 66세로 입적하다. 이조판서 홍계희(洪啓禧)가 비문을 짓고 비와 부도는 해남(海南) 대흥사(大興寺)에 있다. 분화에 화월성(華月亭) 2동, 호암제정(虎巖齋庭), 설송연초(雪松演超) 등이 뛰어나다. [명장, 조선불교통사, 통사영전, 佛統卷9 · 환성집] 저서 : 『海門五種綱要 1권』 [환성집] (4왕사본 원존).

설송연초(雪松演超, 1676-1750) : 조선후기 성은 백씨 경산자(敬山子) 인(仁) 증신. 1688년(仁宗40) 13세에 운분사(雲分寺)로 출가하여 처음에는 석재(石在)를 섬기고, 뒤에 환성지안(玄聖地安)에게 참여하여 두 분의 법을 함께 받고 서산후정(西山後正) 이후 갈라졌던 두 파를 통합하다. 내전(內殿)을 널리 보아 풍부가 깊으므로 학인이 운집하다. 만년(萬年)에 학인(學人)을 사절하고 참선하다가 영조26년 5월 75세로 입적하다. 다비후 통도사와 운분사에 분장(分葬)하였고, 4년 뒤 이천보(李天輔)가 지은 비(碑)가 운분사에 세워졌다. [조선불교통사, 통사영전, 해동불조원류]

4) [통도사지(通度寺志)]의 '사략(史略)'에 의하면 자장암(紫丈岩) 석봉(石峰)을 화주(化主)하셨다고 하다. 또 [비명]에 명신학교(明新學校) 설립의 일을 볼 수 있다.

는 미상한대 취운암^{崔雲巖}에 머무셨고, 표^表를 보면 상호선사 ^{상호선사}의 제자 오성우^{吳性宇}측^右은스님의 법사^{法嗣}로 나타난다.

(2) 고산진일^{古山眞一}, 1853?~?): 생몰년은 미상이고, 자장암^{紫藏庵}에서 오래 주석하셨고,* 합방전 광무10년(1906년) 가을 구하^{九河}스님을 주축으로 명신학교^{明新學校}를 설립할 때 통도사 주지로 제시면서 적극 후원하였다. 문하에 이운송^{李雲松}, 신일송^{申一松}이 있다.

(3) 포우우일^{浦雨宇一}, ⑧: 생몰년·전기미상. 스님은 표에 의하면 동명^{東明}선사의 제자 화봉유철^{華峰維哲}의 법손^{法孫}이 된다.

(4) 포산인학^{布山仁學}, ⑧: 표^表에 의하면 경파^{敬波}선사의 제자 화악태영^{華岳泰榮}스님의 법손임을 알 수 있다.

(5) 성해남거^{聖海南巨}, 1854~1937, ⑧: 스님은 오늘의 통도사가 있게 한 중요한 인물이다. 먼저 스님께는 네 분의 상족제자^{上足弟子}가 있는데 구하천보, 경봉정석, 경하달윤^{鏡河達允}, 제하법성^{濟下法成} 등으로 특히 구하스님과 경봉스님이 그 주축이 되는 분들이다. 스님의 휘는 남거^{南巨}요 법호는 성해^{聖海}시며, 울산군 서생^{西生}로 태어난 사람으로 성은 김해^{金海} 김^金씨이다. 17세에 기장^{機張} 장안사^{長安寺} 촉통태일^{觸通泰一}에게 출가하고 27세에 은사^{恩師}를 따라 통도사로 이주^{移住}하고, 이듬해에 만하승림^{萬下勝林}에게 수구^{受具}하고 놀암재^{洛岩齋}에 대교^{大教}를 수료^{修了}7, 그 뒤 공안^{公案}을 참구하였다. 39세(1892)에 통도사 승통^{僧統} (원재의 주자에 취임하고 51세(1900)에 다시 총섭^{叢攝}, 앞의 승통과 같은 직위)이 되어 보사에 진력^{盡力}하다. 53세

(1906)에 불교전문강원^{佛敎專門院}을 설립^{設立}, 원장^{院長}을 겸하여 이후 10여년간 강원 후원에 힘쓰시다. 또 61세(1910)에 보광선원장^{普光禪院長}으로 수좌^{首座}를 제접^{接接}하였다. 스님은 천성^{天聲}이 청백^{淸白}하고 위의를 진중엄정^{珍重嚴正}하며 자비온후^{慈悲溫厚}하고 수행과 보사^{補沙}에 진력하였으며, 특히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하여 어린 스님들에게 말하, '출가인^{出家人}이 성취대도^{成就大道}는 못하더라도 물질로 인한 죄과^{罪過}를 범하지 말라. 또한 항상 수좌외호^{首座外護}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정묘년(丁卯年, 1927) 12월 28일 자시^{子時}에 74세로 시적^{示寂}하였다. 1965년에 문도^{門徒}들이 조성한 탑비^{塔碑}가 통도사 부도전^{浮屠殿}에 있다.(탑비, 통도사사적기)

(6) 용산법중^{龍山法中}, 또는 法中 ⑧: 표에 의하면 동명선사의 제자 침계관추^{沈啓寬}의 법손이 된다.

(7) 중암기정^{中庵奇正}, 또는 基正, ⑧: 표에 의하면 스님은 동명선사의 제자 호봉행원^{虎峰幸元}의 법손이요 아래 서봉봉을^{西峰峰翁}, ⑧의 스승임을 알 수 있다.

(8) 연봉봉오^{蓮峰鳳梧}: 생몰년은 자세하지 않고, 6척 장신이며 항상 일하기를 좋아하고 논밭을 사고 개간해서 절에 헌납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42명의 계원스님들의 전기^{傳記}가 자료부족과 고증을 받을 방법이 없어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계속) 2021

5) 놀암스님은 아마도 당시 통도사 강백^{康伯}이셨던 모양이다. 광서^{光緒}14년(고종25년, 1895)에 사^師가 지은 [임자갑보사현공서^{임자갑보사현공서}]에 보운문인^{보운문인}이라 하니 대흥사 강백 보운석^{보운석}—(1813~1883)의 제자인 듯하다. 2020. 12. 10

수행,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 II

불다마라(本無)스님/다보선원

-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의 제거 -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즐거움을 추구한다. 부처님은 즐거움(sukha, 樂)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것보다 괴로움(dukkha, 苦)을 제거함으로써 행복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보았다.

흔히 즐거움이 부족하여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만족스럽거나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을 추구하여 그러한 괴로움을 잊거나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즐거움의 부족이 아니라 괴로움 때문이라고 보았다.

즐거움은 그 속성이 맑고 부드럽지만 괴로움은 탁하고 날카롭다. 이것은 마치 한두 방울의 먹물이 맑은 물 전체를 흐리게 하듯이 하루 종일 즐겁다가도 잠자리에 들 때 귀에 거슬리는 한 두 마디의 말이 모든 즐거움을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즐겁지는 않아도 괴롭지만 앓다면 세상은 살만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괴로움의 제거로 잡았다. 부처님은 미가다-야(imigadaya, 彌加達)에서 5비구들에게 행한 최초의 수행지도에서 고집별도(苦集滅道) 4성제를 설하면서 맨 먼저 괴로움을 제거하여 행복으로 가는 길을 설했다.

4성제의 처음이 고(dukkha, 苦)로 시작하니 흔히 인생은 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생 전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인생 전체가 괴롭다면 굳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행한 인생도 인생일 것이고 수행하지 않은 인생도 인생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괴로움 발생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해소하는 방법 또한 달라야 한다. 법, 제도, 관습 등이 잘못되어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를 통하여 법, 제도, 관습 등을 고쳐야 만이 괴로움도 멈춘다. 병이 들거나 다쳐서 몸이 아픈 경우가 있다. 이때는 병원으로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행위는 괴로움을 제거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이다.

그러나 법, 제도, 관습 등이 불평등하고 삶의 현상이 폭력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러한 법, 제도, 관습 등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지수와 분노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수행을 통하여 욕망지수, 분노지수, 편견지수를 낮추는 것은 괴로움을 제거하는데 본질적이며,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다.

개인의 마음속에 욕망이나 이기심, 분노나 적대감, 또는 편견이나 선입관 등이 넘쳐서 마음이 괴로울 때는 수행을 통하여 그러한 정신적 노폐물, 정신적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부처님은 마음속에 넘쳐나는 탐진치 3독심을 수행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중심영역으로 삼았다.

- 욕망이 아니라 만족자수를 높임 -

우리는 바람 또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바람 또는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해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괴로워한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보면 욕망을 추구하면서 행복으로 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욕망을 충족시키기도 힘들지만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겪는 긴장, 갈등,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은 지친다. 하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새로운 욕망이 일어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물질은 우주공간에 없다는 사실이다.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욕망을 충족시켜서 행복으로 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보았다.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망을 절제하고 만족지수를 높여서 행복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욕망과 이기심이 요구하는 대로 수요를 공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함으로써 만족지수를 높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 구속이 아니라 자유 -

우리는 접촉과 구속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려고 한다. 좋은 느낌을 일으키는 대상에 속박됨으로써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다양한 접촉 대상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부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다. 어떤 종류의 속박이나 집착이라도 마음을 오염시키는 번뇌라는 노폐물을 파생시키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보았다.

미움과 증오에 집착하는 것도 구속이지만 사랑과 애정에 집착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의 구속이다. 대개 미움과 증오보다 사랑과 애정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상에 집착하고 구속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마음에 반영되는 대상을 접하는 순간 그 대상이 욕망과 이기심을 만족시키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한다. 정신적 갈등 상태인 갈애(tanha, 渴愛)가 일어나면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라도 그 대상을 취하거나 제거하려고 행동하는데 이것은 그 대상에 그만큼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현상에 대한 집착을 끊으면 감각대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초연하고 당당해 지는데, 그러한 삶이 쿨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다. 대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초연한 마음상태는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고 삶은 행복으로 충만해진다.

문제는 인식대상에 구속(束縛)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워질 것(vimokkha, 解脫)인가 하는 점이다. 부처님은 인식대상에 구속되는 것만큼 고통은 커지고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행복 또한 커

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며 구속의 크기가 고통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구속당한다. 감각대상으로부터 구속당하기도 하고 지나온 삶의 흔적으로부터 구속당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감각대상으로부터 구속당함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각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감각적 접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작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조그만 노력하면 가능하다 백화점에서 본 물건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눈앞에 어른거리면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그 현상에 구속되어 있다. 그러나 볼 때, 아 좋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면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그 자유의 크기만큼 행복 또한 커진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또는 마약 등을 접하면서 행복으로 가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접촉을 끊고 행복으로 가려고 한다. 술을 마시다가 끊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개의 경우 술로부터 해방된 지금의 삶이 훨씬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접촉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것 보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행복으로 가는 것이 질적으로 훨씬 높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접촉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행복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 편안함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

우리는 편안함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르게 사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보았다. 편안하게 가는 길은 처음에는 쉬울지 몰라도 갈수록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더 편안해지기 위하여 요령을 피우고 평계를 만들기 때문에 갈수록 꼬이고 얽히게 되기 때문이다. 올바른 길이 힘든 것은 그만큼 잘못된 길이나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이다.

올바르게 사는 길은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갈수록 편안해진다. 원칙을 세우고, 규칙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야말로 편안하고 올바르며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보았다.

- 건강한 마음 -

행복한 느낌은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결정한다. 행복은 다소 복잡하다. 행복은 느낌이 결정하는데, 느낌은 조건과 조건을 접촉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건강과 마음상태에 따라서 다차원으로 일어난다.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다소 박잡해 보이고 때로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복잡할 뿐이지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고, 주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몸이 건강할 때는 주변에서 귀찮게 해도 지나가지만 피곤할 때는 평소 아무렇지도 않던 자극들에 대해서도 과민하게 반응한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주변 사람들이 거친 말을 해도 웃을 수 있지만, 마음이 피곤하거나 초조할 때는 지나가는 개만 쳐다보아도 신경질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자극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의 건강성이나 마음상태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는 병원균이 많지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원균으로부터 자유롭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병원균에 감염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어지간한 자극을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그마한 자극에도 과민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불교 수행의 중심영역이다.

- 수행, 행복으로 가는 길 -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가꾸기 위하여 뭔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흔히 마음을 건강하게 하자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처님은 반대로 생각했다. 마음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인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 보았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정신적 노폐물, 정신적 오염원을 제거하면 마음은 스스로 자생력과 자정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지치게 하는 주범은 욕망과 이기심이다. 이것을 부처님은 탐심(rāga, 貪)이라고 했다. 좋은 것을 접하면 취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마음은 선도 악도 아니고 단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일 뿐이다. 문제는 탐심이 너무 많으면 마음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며, 삶이 불편해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접촉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접촉은 일어난다. 그러나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 작용과, 욕망과 이기심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vimokkha, 解脫), 그 자유의 크기만큼 행복지수는 올라간다.

이러한 욕망이나 이기심보다도 더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주범은 분노나 적대감, 원망이나 서운함이다. 이것을 부처님은 진심(dosa, 瞋)이라고 했다. 싫은 것을 접하면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마음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진심이 마음에 너무 많으면 살기가 힘들다.

욕망이나 이기심은 났다가 안났다가 하지만 분노나 적대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 등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을 없다. 그러나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켜 보면 마음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지치게 된다. 미운 대상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피곤하게 한다. 욕망과 이기심보다 분노나 적대감, 원망이나 서운함이 우리 마음을 더 피곤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밀쳐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대상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에 기초해서 형성시킨 편견이나 선입관, 또는 특정한 가치관에 기초해서 대상을 구분하고 차별한다. 편견이나 선입

관에 기초해서 대상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어리석음(moha, 癡), 또는 무명(avijja, 無明)이라고 한다.

손가락이 아리거나 이가 아프면 즉각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한다. 그곳이 아파서 죽지는 않지만 자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통증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암에 걸리거나 하면 자극이 거의 없다 그래서 방치하게 되는데 스스로 자각 중세가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면 손도 쓸 수 없는 경우가 흔하다.

정신적 노폐물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이다. 욕망과 이기심, 분노나 적대감은 자극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스로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편견과 선입관 등은 자극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방치하게 되는데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대상을 접촉하면서 살아간다. 대상을 접촉한다는 것은 단순히 접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에 따라서 접촉 대상을 구분하고 차별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밀쳐내려고 한다. 그렇지만 편견과 선입관은 자극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것들이 개입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은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편견과 선입관에 기초해서 대상을 바라보는 무명과 무명으로 인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밀쳐내려고 하는 정신적 갈증(taṇha, 渴愛)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갈애에 집착(upādāna, 執著)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욕망과 이기심, 분노와 적대감, 편견과 선입관, 이 세 가지를 부처님은 마음에 관한 한 독가스와 같다고 하여 탐진치 3독심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독가스가 마음에 있으면 마음은 오염되고 활력을 잃고, 무기력하며, 피곤해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은 바로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정신적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적 오염원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이라고 한다.

알아차림(āsi, 覺), 위빠까나(tripassana, 觀), 참선(jhāna, 禪)으로 알려진 부처님 정통 수행법을 통하여 정신적 노폐물, 정신적 오염원인 3독심을 제거하면 마음은 활력을 되찾고, 맑고 건강해져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력을 높여,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데, 이것이 수행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불교문화의 특징

- 자본주의 문화의 특징 -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문화의 소비자로서 그 문화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간다. 경쟁과 갈등, 욕망과 폭력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문화는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지만, 삶에 필요한

물질을 획득하고 한정된 재화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존재를 소외시키고,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갈등은 도리어 삶을 지치게 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폭력에 의존함으로써 삶의 토대가 적박해진다.

자본주의 문화의 기본 구조는 단순하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심으로 구조 지어져 있고 자본의 소유와 세습을 허용한다. 그렇다면보니 보다 많은 자본을 소유하고 세습시키기 위하여 자본이 순환해야 하는데, 자본의 이동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로서 가능하다.

상품의 소비는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필요와 욕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소비욕구를 자극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이 바로 광고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광고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그 실상은 대중의 소비욕구를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자본의 순환을 통하여 더 많은 자본의 축적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대중은 불필요한 것도 광고의 영향으로 소비욕구를 일으키거나 광고에 길들여진 대로 불필요한 소비재를 구입한다.

자본주의는 기업이 더 많은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한다. 그 결과 삶에 필요한 물질을 관계된 모든 존재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하고 세습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자원을 소유함으로써, 존재들의 관계는 평등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서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갈등은 커지고 폭력지수는 높아진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욕망과 이기심을 절제하기보다 오히려 다차원의 폭력에 의존함으로써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평화를 파괴하고 삶의 토대는 적박해지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지구를 사람조차도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만든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후기에 만들어진 자본주의 문화는 인류 문명을 꽃피우는 측면도 있지만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 가운데서 가장 폭력적인 자본주의 문화가 한동안 지속되겠지만, 그 대안으로서 비폭력적인 평화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소비되는 사회를 절실히 요구한다. 그 중심에 평등, 평화, 공존, 그리고 자유와 행복으로 대표되는 불교문화가 있다. (계속) **꽃피**





두남학교 일일체험 봉사활동 (5. 23)

14명의 어여쁜 여학생들이 자비원을 방문했습니다. 두 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의 말벗도 해드리고 어르신 생활공간 청소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었고 즐거운 하루였길 바랍니다.



어르신 야외 점심식사

전문요양원에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이 되면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점심 드시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늘 집안에서만 드시던 점심을 일상에서 벗어나 자비원 앞마당 벤치에서 자장면을 배달시켜 드셨습니다. 자장면이 배달되어 오니 멀리 외식하러 온 거 같으면서 함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남청노인옹 방송 수신기 무상지급

서울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남청노인옹 방송 수신기 10대를 지급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흔한 보청기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잘들리지 않은 채 답답한 마음 풀이여 살아오셨는데 덕분에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더 밝고 여유로워지셨으며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충도사지배원

아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 양로시설 : 요식급매드, 음식코린, 방한재, 바디오일, 바디로션, 욕상뚜, 화장지, 물타슈, 화장실청소제, 세제, 청소기, 세탁기, 복사기, 구충제, 파스, 반창고, 밴드, 소화제, 주부식, 간식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 지동차 지역 내 어르신 병·의원 이송용 및 가정봉사원(이동용), 아늑, 간식, 주부식

자원봉사자 모집

- 양로시설 : 각종 어르신 프로그램 진행, 레크리에이션 진행 및 보조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 주 1회 또는 월 2회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차량봉사자, 가정봉사원, 도시락 및 일반한 지원 전달, 어르신의 형견을 위한 안목서비스 지원 목록량,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지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후원회 후원금 계좌번호

- 양로시설, 요양시설
- 우리은행 178-081101-13-501 농협 813037-51-054104
- 제일은행 787-20-020438 우체국 811434-01-000001
- 부산은행 115-13-000158-3 조흥은행 817-03-002034
- kb은행 8888-01-0040-8881 kb국민은행 843701-01-013728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농협 813037-51-102887

예금주 : 충도사지배원

지 · 로 7800780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72-3번지
전화 : (055) 383-3555, 381-3555
FAX : (055) 381-2242

송화비품 보내실 때- 지로로지에 송화비품 계좌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송화비품은- 화제가있다면 후에 알려드립니다.

박물관 소식

2005학년도 교원연수 접수 상황

본관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여름·겨울 전국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복수분야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원 전통문화연수는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연수시간이 인정되는 과정입니다.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수강신청 : 6/1일 ~ (선착순) 80명
- 수강기간 : 8/18(목) ~ 8/24(수)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5일간)
- 수 강 료 : 8만원(식대 및 답사비 포함)
- 접수신청 : 본 박물관 홈페이지(tongdosamuseum.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tongdosamuseum@empal.com) 또는 팩스(055-384-0030)로 접수.



서각반회원 잇따른 입상 소식

동도사정보박물관 서각반회원들의 잇따른 대회 수상 소식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서각대전에 출품한 정동환씨와 이숙희·조길상·최동진씨가 각각 복선과 입선에 당선되었으며, 제17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서는 권정자·박영은·서상우·양숙지·정동환·조길상·최동진·최환하씨 등 수상자들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한편 서각반에서는 토요일초반을 신설합니다. 오는 8월부터 매주 오후 1~4시까지 강좌가 개설되며, 모집인원은 20명 한정입니다.(문의사항 박물관대학 담당자 ☎ 016-9411-4543)

문화자원봉사회 소식

2005년 문화자원봉사회 심사순례 행사 성료

문화자원봉사회(회장 박남규)에서는 지난 6월 14일 전회원을 대상으로 심사순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 팔공산 송림사를 비롯하여 달성 용연사·현풍 유가사와 창녕 청련암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한 이번 행사를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 그리고 신심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남규 회장 이하 임원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폐불전에 인등을 밝힙시다

동참안내

- 인등회비 : 인등 1등당 월 5,000원(1년 60,000원)
 - 접수방법 : 신규 - 박물관 중앙홀 접수대
 - 회비납부 : 중앙홀 접수대
 - 납입방법 : 1년 일시불 및 매달 분납가능
 - 계좌번호 : 농협 : 813031-61-00021 동도사박물관
- 한빛은행과 무체국 계좌는 거리 중지하오니 입금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인등법회 안내



박물관 인등기도 안내

- 일 시 : 2005년 7월 19일(음력 14일) 화요일 오후 6시
- 장 소 : 박물관 중앙패물전
- 매월 음력 14일, 박물관 인등장진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직접 축원해 드립니다.

박물관 정진기도법회 버스 운행시간이 하절기를 맞아 오후 4시 30분(온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축소식



순천시청불자회 방문

지난 6월 5일~6일 1과2일간 순천시청공무원 불자회에서 본사를 방문 참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합동수계법회

6월 25일~26일 양일간 본사에서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5차 합동수계법회 및 제11차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설법전에서 입재식을 가진 후 다음날 새벽 삼보일배를 마치고 본사 전계대화상이신 중산 해남 스님을 모시고 수계법회를 가졌습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지난 6월 18일 템플스테이 사업단의 요청으로 미국인 교사 23명이 본사를 방문하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박물관 다도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례시연을 본 후 함께 전통차도 마시고 박물관 관람, 경내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외국인 모두 한국의 전통다도 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6·15통일대축전행사에 남측 명예대표 자격으로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과 함께 본사 주지스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여 민족통일대회와 제육행사등에 참석하고 오셨습니다.

「등불」을
보다 널리 비취~
보다 밝은 불국토로~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조사스님들의 고결한 정신을 담아내는 청정한 지면이기를 염원하며 세상을 비추는 오롯한 빛이 되고자 시작한 통도사의 표지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하나에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닦아 혜안을 얻게 되면 사방이 환하게 탁 탁하여 아무런 결집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니 그것은 한갓 지식으로 닿을 수 없습니다. 등불을 만나 보십시오. 깨달음을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푸른 숲술과 맑은 시내와 매화 향기와 휘파람새의 노래가 들어있는 「등불」의 향기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5)384-8380